

1. 머릿말

최근 날씨의 변화가 이상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들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 필자가 10월말 경에 농장의 언덕에서 봄에 보는 산딸기 열매를 봤다. 현재 필자가 살고 있는 홍성에는 새벽 6시의 기온이 0도에서 점심때는 20도 가까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모돈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일기 변화를 모돈들은 서서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존해야 종을 보존할 수 있을지 하지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변화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성적이라는 명목화에 말이다. 한 예로 항상 집사람하고 논쟁한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주입식 교육에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고 해서 이런 교육자체가 애들한테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보니 하나는 더 알고 모르고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인생에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들은 불안하다 성적이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하나 틀린 것에 목숨을 건다. 우리 양돈을 보라. 이와 같은 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2월달에 관리 포인트는 농장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 걱정이다.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그 수익은 빠져나간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다.

2. 강건한 모돈을 만들기 위한 사료관리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이 강건한 모돈이다. 어디든지 가도 이 이야기를 듣는다.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야기 될 사항이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직 듣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이다. 사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이것은 매일하기는 힘들지만 15일마다 한 번씩은 해주어야 하는데 관리자의 눈은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다. 교정이 필요할 때는 교정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라. 사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매달 들어가는 사료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엄 현 종 원장
피그월드동물병원
한국양돈수의사회 총무

〈표 1〉 모돈규모별 임신돈 및 포유돈 사용량(기준)

모돈수	임신돈(톤)	포유돈(톤)	모돈수	임신돈(톤)	포유돈(톤)
100	660	420	600	3,960	2,520
200	1,320	840	700	4,620	2,940
300	1,980	1,260	800	5,280	3,360
400	2,640	1,680	900	5,940	3,780
500	3,300	2,100	1,000	6,600	4,200

모돈두수 대비 임신돈과 포유돈의 사용량을 체크해 보자. 3개월치를 묶어서 평균치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서 사용량이 적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 농장에 사료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농장은 모돈 200두 인데 임신돈 사용량이 1,000톤 정도 월평균이 되고 포유돈은 800톤이 된 상황에서 임신사를 보면 모돈들이 얹어져 있다. 이것을 육안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료로서 알 수 있다.

3. 질병 관리

둘째, 질병적인 부분이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바이러스성 질환이 유난히 심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특히, PED의 경우에는 확실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번 겨울이 발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기율이라는 점이다. 그에 맞게 날씨가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에 대한 접종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초유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라. 최소한 산차별로 5두 이상을 채취하여 3ml 이상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전체가 모이면 검사를 해보면 수치를 알 수 있다.

방어선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지 그 동안 집중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도 불안하면 보험이라도 들어라. 호흡기 질병 중에서는 인플루엔자가 가장 걱정이 된다.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피해를 주고 가기 때문이다. 신속한 조치가 생명이다.

대처방안은 음수에 해열제를 3일 이상 투여하는 방법과 일괄적으로 해열제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일괄 접종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4. 차단방역

셋째, 차단 방역이다. 돼지, 출하차, 사람, 일반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차단이 중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농장주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떤 지역에는 차량이 분만사 입기까지 들어간다. 이런 농장에 차단방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차량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사람의 신발이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한 번 들어오면 피해가 막심하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오지 않으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5. 인력관리

넷째, 사람관리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전체의 힘이 필요하다. 앞으로 양돈장은 인력을 어떻게 공급받느냐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도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으면 현재 남아 있는 내국인에 대한 자질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

위의 사항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과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섞여 있다. 숙제를 하더라도 순서가 있으므로 이 순서를 농장에서 하나씩 정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 한 두가지라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장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더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양돈**